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시편 67:1-2)

싱가폴에서 지내던 초반 어느 즈음에 저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알았던 이 말씀이 왜 떠올랐을까, 곰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2025년의 두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한 싱가포르 베이스의 첫번째 제자성경학교(디비에스 DBS: Discipleship Bible School)를 지난 주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 4개월 가량의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그로 인한 은혜를 되새기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참 많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면서 물론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에는 빡빡한 스케줄과 더운 날씨에 제가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제 모든 생각 이상으로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듯한 상황이 올 때, 제가 통제하지 않아도 그 어려움이 비껴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통제하기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지난 기도제목으로 저희 팀이 싱가포르 베이스에 잘 적응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처음 가는 가정과 형제님께서 베이스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교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좋은 팀웍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각 스태프들이 다 성숙한 분들이기도 했고, 자신의 말은 부분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순간 순간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오히려 더 좋은 시간으로 만들면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강사의 스케줄이 바뀌는 일도 2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스태프들이 강의를 하는 주도 있었지만, 오히려 학교 전체로서는 서로에게 좋은 배움과 축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거나 혹은 살기 위해 계획하는 분들이었기에, 이 학교가 저희가 꿈꾸는 대로 더 의미있게 진행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 가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번째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없어서 마음 한편에 실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저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함과 충성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신
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길을 열어가실 지 믿음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성경학교 (DBS)에 대해...

제자성경학교 (Discipleship Bible School-DBS 디비에스)는 12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이 시간동안 성경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큰 그림을 배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 공부합니다. 매일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함께 성경을 읽거나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성경 각권을 자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12주의 과정을 통해 이 성경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귀납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 또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제자된 삶을 살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인 과제도 있지만, 매일 함께 수업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공동체적인 환경 가운데 성경을 배울 수 있게 격려하는 학교입니다.



두번째 학교

8월 25일 - 9월 5일 : 스태프훈련기간
9월 12일 - 12월 17일 : 제자성경학교



기도제목

1. 사역

- 두번째 학교에서 섬기는 스태프에 변동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스태프들과 계속해서 섬기려는 스태프들이 나와 기쁨으로 섬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와웬 싱가포르에서 이 학교(DBS)를 지속적으로 섬길 리더와 스태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현재 두명의 리더가 세워졌고, 이번에 에드먼과 함께 리더십팀으로 학교를 섬기려고 합니다.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과 소원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학교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열려서 학교에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개인

- 에드먼은 현재 캄보디아에 2주간의 DBS 강의를 위해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학교기간 중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DBS에 강의하러 다녀옵니다. 강의와 여정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둘 다 체력과 에너지가 잘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는 내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무리 하기 위해 1년간 머무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학교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도 비유하고, 친구나 부부와의 사랑에도 비유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감히 무언가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에 압도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에 익숙해 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는 절대 익숙해 질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에드먼 + 한나 드림.